

1965年度 大學圖書館의 回顧

張 一 世

(梨花女大圖書館學科助教授)

一. 圖書館法과 同法施行令

1963年 10月28日 通過된 圖書館法에 이어, 1965年 3月26日에는 同法 施行令이 制定公布되므로써 不充分하기는 하지만 일단 法으로서의 體裁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한가지가 빠졌는데 그것은 各級 學校圖書館과 大學圖書館의 施設基準임은 우리들이 아는바이다. 事實 施行令 가운데서 그 施設基準이 빠지므로써 우리들 圖書館人들의 期待에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意味로는 맥빠진 施行令이 되고만 感이 없지 않았음은 千萬遺憾된 일이다.

여기서는 圖書館法이나 同施行令에 대한 問題點을 論議하는 것이 目的이 아니므로 더 以上 言及하지 않겠으나, 事實上 大學圖書館에 대한 施設基準이 制定되지 않는 지금에 있어서도 大學圖書館만은 大學設置基準令이 살아 있으므로 이의 制約을 받고 있음은 勿論이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詳細히 圖書館關係에 대한 基準이 아니므로 해서 새 施設基準을 바라는 마음 잔질하거나와, 그러나 그 設置基準令 德澤으로 大體로 다른 部類의 圖書館, 即 公共圖書館을 爲始하여 學校圖書館이나 特殊圖書館을 보다 越等하게 좋은 圖書館建物을 가지고 있고 또 相當한 量의 圖書도 保有하게 되었다.

그런데 施行令에서 制定한것 中 大學圖書館에게 가장 重要한 것은 同法 第6條에 定한 「司書職員 配置基準」인데 第6條3項에 보면 『...그 學生數 500人 以下인 때에는 2人的 司書職員을 두며, 그 學生數가 500人을 超過한 때에는 超過하는 800人마다 1人的 司書職員을 增置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으므로 가령 5,000名의 學生을 가진 大學이라면 最少限度로 8名의 司書職員을 두어야 한다. 勿論 이 程度의 數로서 充分한것은 아니지만 同施行令 第4條 「司書職員의 資格과 區分」에서 規定되어 있는 것과 같이 一定한 圖書館學教育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하므로 從來와 같이 아무 사람이나 앉힐 수 없게 된것이 特徵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이 規定도 언제 부터라는 時限이 없으므로 口頭禪으로만 끄껴버

리기 쉬운 것이 遺憾된 일이지만 施設基準이 마련될 때 이러한 問題도 解決되어야 할것이다.

上記한 施行令과 더불어 今年에는 여러가지의 重要한 變化가 엿보이는데 大略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二. 司書·圖書費·藏書量

司 書

大學圖書館에는 專門職教育을 받은 司書가 많은것이 特徵이다. 延世大나 梨花女大 圖書館과 같이 거의 司書 全員이 專門職教育을 받은 곳이 있는가 하면 建國大學校와 같이 18名 司書 가운데 10名 以上이 專門職教育을 받은 곳도 있다. 아마 全國적으로 보아 專門職教育을 받은 司書가 最少 1名 以上이 各 大學圖書館에 있을 程度로 教育받은 司書가 많음은 그만큼 大學圖書館이 他種 圖書館 보다 發展할 수 있는 原動力인지도 모른다.

지금 現在로 보아 延世大 圖書館學科에서는 6회의 卒業生을 냈고 梨大는 3회의 卒業生을 輩出했는데, 1967年 봄에는 中央大에서,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8年 봄에는 成均館大에서도 卒業生이 나올것이므로 4年制 正規圖書館學科 出身이 年 120乃至 130名式 輩出될 것이다.

圖書館法 施行令 第4條에 따른 正司書 또는 準司書 資格을 獲得할 수 있는 機關으로서 今年 봄 成均館大學校에 韓國司書教育院이 設置되었는데, 이것은 夜間1年 課程으로서 現在 1,2期生 約90名이 在學中이다. 또 이와는 달리 文教部와 韓國圖書館協會 共同으로 司書養成 講習을 實施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가을 3週間과 來年 봄 3週間을 履修함으로써 資格證을 交付받게 된다.

成均館大學의 司書教育院이나 圖協主催의 講習은 圖書館在職者 中에서 受講함으로써 資格을 獲得하고자 하는 분들이 大部分인데, 이것은 現在 圖書館에 있는 분들을 救濟하기 위한 經過措置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中的 하나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앞으로 많이 必要하게 될 司書를 어느 程度 充當하기 위하여서도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인 하지만 可及의이면 圖協같은데서

는 그와 같은 講習을 하지 말고 圖書館學科가 있는 大學에 委屬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效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하여간 圖書館法과 同施行令에 規定된 바에 따라 正式으로 正司書 및 準司書 資格을 가진 분들이 많이 輩出하게 되었다는 것은 今年 圖書館界에 이러한 重要한 일의 하나이다.

圖書館費 · 藏書量

圖書館 運營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要素인 人的 構成에 뒤이어 重要한 것은 圖書館資料 購入을 위한 圖書館費 問題이다. 圖書館費가 적으면 모든 計劃이 挫折될 뿐만 아니라 意慾마저 喪失하게 된다.

近年에는 多幸히 文教當局에서도 차츰 大學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게 되어 學生으로 부터의 圖書館費 徵收를 許可하게 되었다. 今年의 경우를 보면 最高 學期 學生 1人當 200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大學圖書館 運營에 어느 程度 活氣를 넣어 주고 있으나, 이것이 獨立된 圖書館費로서가 아니라 自律的經費의 一部를 徵收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大學에 따라 다른 것이 큰 흠이라 하겠다. 더우기 어떤 大學에서는 自律的經費의 一部로서 圖書館費를 徵收한 後 이것을 다른 經費로 流用함으로써 物議를 일으키는 곳도 있다하니 앞으로는 圖書館費로서 獨立 會計를 할 수 있도록 뚜렷이 明示하여 徵收하게 하여야 할 줄 안다.

多幸인지 不幸인지는 모르나 1966年度부터는 私立大學 納入金限度가 없어지는 關係로 學校當局의 裁量에 의하여 納入金額을 策定하게 되어 있으므로 學校當局에서 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높은 곳일 수록 많은 圖書館費가 策定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들리는바에 의하면 某大學에서는 學生 1人當 學期에 500원 程度를 徵收할 것이라고 하니, 萬一 그렇게만 된다면 앞으로의 大學圖書館도 어느 程度 正常的인 運營과 發展을 期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圖書館費와 藏書量과의 關係는 正比例함은 두말 할 必要도 없거니와 近年에와서 藏書量이 急增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삼아 最近의 全國 大學圖書館 藏書量 및 其他를

	圖書館數	職員數	閱覽席	藏書數
1960年 末 現在	68	405	14,610	2,285,335
1963年3月 末 "	93	740	24,247	3,361,786
1964年3月 末 "	101	759	27,188	3,634,154
1965年3月 末 "	109	838	28,231	3,951,379

※ 韓國圖書館協會의 調查統計表에 依함.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上記의 表를 볼때 몇가지의 特徵을 發見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不過 5年 동안에 藏書量이 거의 80%나 增加했다는 事實과, 閱覽座席數가 1960년에 比해 1963년에는 70%, 1965년에는 約 倍로 늘어 났고, 역시 職員數도 倍 以上 增加한 事實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大學圖書館數도 109로 大幅 늘어남으로써 1964年 12月 末 現在 4年制 大學總數 66校, 初級大學 總數 47校 合計 113校에 比해 거의 全部가 圖書館施設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大學生 總數 約17萬名을 基準으로 삼아 본다면 閱覽座席만 하드레도 理想으로 하는 25%에 達할려면 아직도 14,000餘席이 不足한 形편이고, 大學設置 基準令에서 定한 藏書數 學生 1人當 平均 30冊으로 보더라도 120萬冊이 不足한 現狀이니 이 基準數에 到達하려면 過去 2,3 年來의 增加率로 볼때 아직 4, 5년이 걸려야 할것 같다.

이미 여러 차례 本報에도 指摘된바와 같이 이 藏書 基準이란 많은 矛盾이 있는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施設 基準이 새로 制定될 때 반드시 是正되어야 할 줄 생각 하나, 萬一 改正된다면 지금의 藏書量으로는 더욱 많은 不足을 느끼게 될것이며, 特히 外國의 例를 볼때 1年 平均 學生 1人當 3乃至 5冊씩 增加하고있는 事實을 생각한다면 우리 圖書館의 藏書量과 增加量은 아직 많이 모자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몇몇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1965年度 圖書館費 와 圖書館購入量 및 受贈圖書量을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大學別	圖書館費	增加圖書數		
		購入	受贈	計
慶熙大	4,300,000	5,000	15,000	20,000
延世大	4,700,000	2,430	1,100	3,530
서울大 中央圖書館	2,697,911	3,446	1,450	4,896
成均館大	4,000,000	3,500	3,000	6,500
建國大	3,500,000	7,000	2,500	9,500
外國語大	595,000	235	1,035	1,270
首都醫大	520,000	387	1,208	1,595
崇實大	200,000	1,000	—	1,000
計		22,998	25,293	48,291

- 註 1. 圖書館費는 대체로 1965學年度 豫算額임.
- 2. 購入 및 受贈圖書數는 대체로 1965年 3月 1日부터 1965年 11月30日까지의 統計임. 따

라서 1965學年度末까지에는 圖書數가 더 增加할 것임.

3. 圖書費로서 自律的經費속에 包含하여 徵收하는 學校는 여러군데 있으며, 最高 學生 1人當 1學期 200원(年400원) 받는 곳도 있고, 1學期 100원 또는 80원을 徵收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全部 圖書費를 받지 아니하는 大學도 相當數에 이르고 있음.
4. 上記 統計는 非公式統計이므로 多少 差異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統計를 보면 慶熙大學校와 建國大學校 같은 例外는 있으나 대체로 圖書增加率은 學生 1人當 1冊 前後인데 外國에 比할 때에는 3乃至 5分之 1에 해당하여, 이것도 受贈圖書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 統計에서 보는 바와 같이 冊數에 있어서 購入 보다도 受贈圖書數가 더 많은 形便이다. 受贈圖書中에서도 돈을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圖書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볼 때 購入하는 것과 같이 必要不可缺한 것이 드물기 때문에 利用 價値는 훨씬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한다.

이러고 보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은 圖書費로서는 도저히 必要한 圖書量을 購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來年度에는 어느정도 希望을 걸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三. 奉 仕

圖書館의 모든 것, 即 施設이라든지, 人員 및 圖書館 資料들은 모두 奉仕를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임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따라서 奉仕야말로 모든 圖書館의 至上目標인 것이다. 그러므로 奉仕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가 또는 못되고 있는가에 따라 그 圖書館을 評價할 수 있게 된다.

教育 받은 圖書館人이 점점 많아 집에 따라 奉仕面이 눈에 띄게 改善되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充分한 成果를 얻기에는 아직도 遙遠한 感이 든다.

첫째 문제는 圖書의 館外貸出이다. 延世大와 梨花女大에서는 敎職員은 말 할 것도 없고 學生들에 대한 館外貸出을 이미 數年前부터 實施하고 있고 그의 成果도 多大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館外 貸出制度가 차츰 全國的으로 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確實한 統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筆者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大學圖書館에서 學生들에 대한 圖書 館外貸出은 반드시 實施되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現在 實施하지 못하고 있는 圖書館에서도 그 實施를 위

한 準備作業이 여기 저기서 進行되고 있음을 볼 때 不遠한 將來에 全國的인 實施가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參考奉仕이다. 이 部門은 다른 部門보다도 比較的의 發展이 遲延되고 있는 듯 하다. 그 理由로는 大學 行政者들의 參考圖書室에 대한 沒理解, 圖書費 不足으로 因하여 參考圖書 購入이 어렵다는 點, (一般圖書에 比하여 高價이므로) 그리고 끝으로 重要한 理由는 教育받은 專門司書의 不足이라 생각된다.

1965年3月末 現在로 볼 때 參考室이 마련되어 있는 圖書館數가 겨우 58館에 不過하고, 이것은 昨年에 比해 단지 3個의 參考室이 增加하였음을 뜻하는데 大學圖書館數 109館에 比한다면 約半數 가량만이 參考圖書室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앞으로 參考圖書室 設치를 위한 努力이 加一層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圖書館 利用指導문제이다. 圖書館이 있는 大學이면 新入生이 들어왔을 때 대체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간단하나마 圖書館 案内를 하고 있다. 그 指導 內容은 大學에 따라 千差萬別이지만 하여간 利用指導를 어느 大學圖書館에서나 하게끔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圖書館의 重要性이 認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틀림없다.

圖書館 利用指導 內容을 보면 가장 간단하게는 몇마디 말로서 끝내기도 하지만 大學 學報를 通해서 利用方法을 指導하는 것이 가장 많이 流行되고 있다. 대개의 圖書館에서는 小冊子를 만들어서 그 圖書館의 利用方法을 指導하는 것이 理想的인 줄 믿고 있고, 푸린트로서나마 그렇게 實施하고 있는 學校數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많은 圖書館에서는 不足되는 經費관계로 前記한 바와 같이 學報를 많이 利用하게 된다. 獨立된 小冊子로 案内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것은 勿論이다.

梨花女大 같은 곳에서는 敎養國語의 敎科書 안에 圖書館欄이 들어 있으므로 모든 學生이 그 敎科書를 통하여 圖書館利用 指導를 받고 있음은 물론 最少限度로 必要한 參考圖書에 대한 指導까지도 兼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方法이 보다 效果的임은 말할 것도 없다. 各大學에서는 그 大學의 實情을 參酌하여 效果的인 利用指導 方法을 考案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간 圖書館 利用指導如何로 그 圖書館이 效果的으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죽은 圖書館이 될 것인가가 決定된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四. 特別活動

1965년에는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特別 活動으로서 몇가지 重要한 일이 있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a) 大學圖書館大會

이미 數年째 圖協의 年中行事의 하나로 每年 1회씩 大會를 開催하고 있는데 今年度에는 異例的으로 慶南 陝川郡 海印寺에서 지난 4月22일부터 23일까지 2日間에 걸쳐 열렸었다.

서울에 많은 大學이 있는 관계와, 開催地까지의 交通의 不便 관계 등으로 因하여 例年 보다도 參加者數가 훨씬 적은 것이 遺憾이었다.

一年에 한차례씩 같은 目的을 志向하여 活動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共通된 問題를 眞摯하게 論議하고 서로의 意見を 交換한다는 것은 斯界의 發展을 위하여 매우 意義있는 일임은 말할것도 없는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年中行事格으로 되고 말 憂慮가 없지도 않은것 같다.

이번 大會에서도 몇분께서 大學圖書館의 여러가지 問題에 대하여 論文을 發表하고 發表된 論文을 主로하여 全體討議를 하는 形式이 取하여 졌는데, 여기에서 發表된 論文이나 討議된 內容이 모두 大學圖書館 運營에 있어서 切實한 問題들임은 물론이지만, 욕심으로 말한다면 좀더 餘裕있는 時間을 가지고 發表할 論題에 대하여 研究할 수 있도록 主催者則에서 配慮하여야 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發表할 論題가 보다 切實한 大學圖書館의 當面問題가 될 수 있는 方向으로 되어 나아갔으면 좋았을것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1966年度의 大會를 위하여 이미 演士와 論題가 決定되어, 위에서 指摘한 點들이 是正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인데 앞으로는 더욱 많은 大學圖書館인들이 參席하여서 有益한 討議를 함으로써 有終의 美를 結을 수 있도록 좀 더 大會에 대한 PR이 必要하다.

參考로 하기 위하여 지난 봄에 開催된 大會에서 發表한 演士 및 演題를 掲載한다.

註··도협월보 第6卷3號 1965年4月號 參照

高雄濟(慶熙大)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相互貸出問題.

李鍾文(圖協事務局長) 國家機能으로서의 圖書館.

高聖秀(慶北大) 藏書의 自然減少는 어떻게 處理되어야 하나.

千惠風(東國大)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司書職과 學的 背景問題.

南承冕(成均館大) 大學圖書館運營의 合理化와 司書職의 訓練問題.

b) 全國 國立大學 圖書館長 會議

이 모임은 國立大學에 限한것이므로 其他의 大學에 대하여는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全國

各道나 代表的인 市에는 거의 國立大學이 하나以上 設置되어 있는 點에서 餘他の 大學圖書館에 미치는 影響을 全然 考慮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全國的으로 國立大學圖書館만이 아니라 有機的으로, 그리고 尖端의인 活動을 해 간다면 이는 곧 여러 다른圖書館에도 큰 刺戟이 될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이런 뜻에서 이와 같은 모임을 筆者는 重要視하는 것이다.

이 會議은 지난 11月 6,7兩日間 忠南 溫陽에서 開催되었는데, 討議事項을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 a. 職制確立과 定員問題
- b. 職員의 質的向上策
- c. 參考業務의 擴充策
- d. 分類表의 統一方向
- e. 複本 交換문제
- f. 基本카아드의 複製문제
- g. 열람자에 대한 訓練
- h. 貴重圖書에 대한 綜合目錄作成문제
- i. 圖書館 豫算 增額問題
- j. 圖書館長 會議의 發展 向上案

위와 같은 問題들에 대하여 眞摯하게 論議된 것이다. 上記한 問題들을 볼때 한두가지의 議題를 除外한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모든 大學圖書館에서도 共通으로 重要視되는 問題들로서 우리들의 關心을 끌게하는데, 이와 같은 案件을 가지고 年例的으로 國立大學 圖書館 向上을 위하여 열심히 討論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다.

여러해 前부터 서울에 있는 大學圖書館 끼리만이라도 어떤 組織體를 만들어서 相互 有機的인 連絡을 취하고 아울러 共同關心事에 대하여 共同으로 努力해 보자는 意見이 여러사람에 의하여 披擲되었으면서도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때 全國的인 規模로 國立大學圖書館에서 만이라도 그러한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意義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좋은 例가 되어서 앞으로의 大學圖書館 發展을 위한 하나의 試金石이 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c) 서울대와 梨花女大의 綜合圖書目錄

서울大學校에서는 12개 單科大學과 4개 大學院 및 附屬研究機關 藏書에 대한 綜合目錄을 作成中에 있으며, 梨花女大에서도 梨大 傘下 各 單科大學 및 附屬機關에 속해 있는 藏書에 대한 綜合目錄을 作成하고 있다. 우리나라 大學圖書館 藏書에 대한 綜合目錄으로는 前記한 2개 大學校에서 作成되고 있는 것이 처음인것으로 筆者는 알고 있다.

綜合目錄이 왜 必要한가를 여기서 論하지는 않겠다.

(6面に 繼續)

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境遇, 뒤떨어진 教育和 文化的 向上을 爲하여 圖書館法의 早速한 制定을 爲기 爲하도록 關係當局에 要請하고 애쓰고 努力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거늘 現在 우리 公共圖書館의 處地는, 子息이 없어 夢寐間에 애써 오던 父母에게 胎氣가 있어, 子息이라고 낳아 놓고보니, 뜻 밖에도 아들이긴 한데 하필이면 그 貴한 子息이 <언청이>인 境遇와 같이, 큰 期待를 갖고 기다리던 法이 이 世上에 나오기는 했으나 아들은 아들인데 病身 子息이고 보니 썩 마음이 내킬理 萬無하다.

前記한바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阻害하는 그 原因을 첫째로 當局과 社會의 沒認識, 그리고 經濟的 貧困을 指摘했고 둘째로 圖書館人 스스로의 努力을 들었다. 아무리 피와 땀을 흘려 일할려고 해도 諸般 與件이 열이면 열까지 모두가 相反되는 속에서 最低히 일할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有能한 公共圖書館 職員이 轉職해 가거나 좋은 자리(일할수 있는 與件이 具備된)를 찾아 大學이나 學校 或은 特殊圖書館으로 하나 하나 떨어져 나가고 있는 事實이 이를 端的으로 立證하고 있

다 하겠다.

圖書館의 3大構成要素를 資料·施設·職員이라고 한다. 아무리 圖書館의 資料와 施設이 잘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運營할 職員이 없는데 公共圖書館이 發展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對答의 強要이다. 그러나 落心할 必要는 없다. <언청이>도 手術만 하면 美男이 될수 있다. 여기에 執刀할 醫師는 바로 公共圖書館人임을 알고<언청이>法을 美男으로 만들기 爲해서 앞으로 公共圖書館人들은 꾸준한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來년에 制定되리 라는 文教部令(施行細則)에 期待를 걸어 본다.

끝으로 韓國의 圖書館 問題는 韓國社會의 現實의인 構造와 그 生態 속에서 찾아 建設해야 할것이기 에 된 가 今年度에 努力한 보람으로 1966年度의 發展과 向上을 다짐해 본다.

註: 計數 및 其他一部事項은 韓國圖書館協會編, <韓國의 圖書館> 1965, 1964年版과 <도협월보>

Vol.5, No.10 에서 Vol.6, No.7까지를 參考함.

(10面에서 繼續)

허나 적은 資料나마 가장 效率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는 綜合目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만 強調하고 싶다.

前項에서 言及한바 있는 大學圖書館 相互의 連結體 이야기와 같이 서울市內 所在 몇몇 大學圖書館 藏書에 대한 綜合目錄 문제도 벌써 數年前에 提起되었지만 여러가지 難關으로 말미아마 成事치 못했던 것이다.

前記한 2校에 있어서의 綜合目錄은 다 같이 同校 傘下 單科大學이나 附屬機關 藏書에 대한 目錄이라는 것이 特徵인데, 차츰 綜合目錄의 必要性이 널리 認識되고 있다는 사실이 重要한 發展이라 하겠다. 그 한 例로서 全國에 散在하고 있는 여러 醫科大學에서는 各 醫大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醫學關係學術雜誌에 대한 綜合目錄을 만들 計劃이라고 한다. 이미 이의 첫걸음으로서 延世大 醫大 圖書館에서는 同圖書館所藏學術雜誌目錄을 지난 11월에 發刊한바 있고, 梨花女大에서는 오는 1月頃 作成할 豫定이며 其他의 醫大圖書館에서도 早晚間 만들 豫定이라니 얼마 안가서 훌륭한 綜合目錄

이 作成될 것이 豫見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大學圖書館界의 劃期的인 事業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五. 結 言

대체로 1965년에 이러한 重要한 일들을 中心으로 大學圖書館界의 發展相을 記述하여 보았다. 筆者는 1965年을 大學圖書館에 대하여 「새로운 轉機가 되는 해」라고 부르고 싶다. 그 理由는 이미 위에서 記述한 여러가지 일들로 짐작이 될줄 안다.

그러나 大學圖書館이 正常的인 軌道에 오르면 오를수록 大學圖書館에 從事하는 司書의 任務는 무거워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窮極的으로 보면 모든것을 움직여 나아가는 原動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圖書館人들은 圖書館人으로서 조금도 부끄럼지 않도록 自己 스스로 努力하여야 할것이다.